

## 우리들의 모습



11월 16일(주일) 교구청 강당에서 예비신학생 11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5명의 신학생들이 성소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교구 청년밴드 '어울림'의 찬양이 어우러진 '성소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신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신학교 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신학생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 · 12월 27일 사도 요한

예비신학생 - 김태영 (개운동, 고3)  
예비신학생 - 김영광 (모전동, 중3)  
예비신학생 - 김현섭 (봉화, 중1)

## 예신 11월 모임

## 예비신학생기본교리

### 신부님이 되려면 어떻게?

예신생들은 신부님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이지요.

신부님이 되려면 당연히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부님이 되고 싶은 다른 학생들과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례에 따라 생활하고, 교수 신부님들로부터 사제가 되는데 필요한 학문을 배우지요.

신학생들은 신학대학에서 4년, 신학대학원에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자신이 왜 사제가 되려는지, 그것이 정말 하느님의 뜻인지 늘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담당 신부님과 지도신부님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사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최종 결정은 주교님이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낸 후 '성품성사'를 통해 부제(副祭)가 됩니다. 부제는 신부님을 도와 신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배우다가 1년 후 사제품을 받습니다.

사제서품 예식에서 교구장 주교님은 부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께 기도를 바치고, 부제는 좋은 목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주교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는 약속, '독신 서약'을 합니다. 바로 평생 동안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만 살아가겠다는 의미이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서품을 받은 새 사제에게는 이제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할 자격과 의무가 생깁니다.

우리 예신생 친구들은 좋은 신부님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지요. 그 모습을 잘 이어가서 나중에 훌륭한 신부님이 되기로 약속해요~!

### 기억해요!

#### 1. 2025년 예비신학생 종강미사

- 일 시 : 12월 14일(주일) 14:00
- 장 소 : 교구청
- 대 상 : 예비신학생, 부모님, 대신학생

## 2025년 12월

## 예비신학생 편지



〈예비신학생 11월 모임 - 성소콘서트〉



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

[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

## 예신생과 나누는 'Joungul'

### - 산타클로스의 유래 -

성탄절이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지요. 성탄절에 '선물'하면, 이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산타클로스(Santa Claus) 할아버지입니다. 매년 12월 빨간 옷을 입고 찾아오는 친근한 할아버지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산타클로스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산타클로스는 4세기 터키의 남부지방 미라(Myra)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오'(St. Nicholaus) 주교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니콜라오 주교님이 어떻게 산타클로스가 됐을까?

니콜라오의 부모님은 부자였는데, 그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오는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돋는데 사용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이들, 죽어가는 이들을 도와주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돋는 자선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이 이유는 모든 재물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니콜라오의 이야기가 내려오면서, 이후 유럽에는 성 니콜라오 축일(12월 6일)에 자선을 실천하는 전통이 생겨납니다. 이 풍습이 나중에 네덜란드 선교사에 의해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네덜란드인들은 가톨릭 주교인 성 니콜라오를 '산테 클라스'(Sante Claas), 우리말 뜻은 '자비로운 요술쟁이'라고 불렀고, 이 발음이 영어로 '산타클로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타클로스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니콜라오 주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추운 날씨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예신생이 되길 바라고, 기쁜 성탄 맞이하세요~!



## 신학생으로부터~



### 우리 예신생 친구들!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내년에 한 학년을 더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졸업을 앞둔 친구도 있겠네요. 시작만큼 중요한 게 끝맺음인데 잘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학교에서 잠시 벗어나 긴 방학을 지내면서, 다른 지역, 다른 성당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해외에서 현지 아이들과 지내기도 했고, 병원에서도 일했어요. 저에게도 이번 올해 방학은 정말 기쁜 시간이었고, 뿌듯하고 잊지 못할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걱정도 많았어요. 다른 성당에서 지낼 때, 해외를 가야 할 때, 낯선 지역에 가서 일할 때마다 걱정이 앞섰어요.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외국인과 어떻게 대화하지, 음식은 입에 맞을까 등등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언제나 하느님께 기도드렸어요. 제가 어디에 가든 도와주시고, 비록 미안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하느님께선 저를 잘 이끌어주셔서 올 한해 너무나 기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년 혹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걱정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느님께선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많이 추워진 날씨에 모두 건강관리 잘 하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길 바라며 내년에도 예신모임에서 꼭 다시 만나요~!

구담 본당, 실습의 해  
김기섭 요셉 신학생

## 난도리 - 백종현 페르디난도

